

# “옥상까지 치솟는 불, 잠옷바람으로 애타게 가족 찾아”

### 새벽 광주 남구 주택 화재로 일가족 5명 사상

### 1층부터 불길...아내 구하려 뛰어든 할아버지

### 잠옷 차림 어머니 “큰아들 어디갔느냐” 아우성

“새빨간 불길이 1층부터 2층을 넘어 옥상까지 치솟았어요.”

2일 새벽 광주 남구의 2층 주택에서 불이나 일가족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최초 신고자 A(20)씨가 화재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주택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 불 속에서 뛰쳐 나온 가족들의 다급한 외침 등을 보고 들었다.

그는 “등 트기 전 어둑한 오전 5시3

분 무렵, 옆집에서 물건이 ‘퍽’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며 “처음엔 옆집에서 다투는 난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이윽고 유리창이 ‘와장창’, ‘퍽’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김새가 이상해 나가보니, 주택 뒷면이 완전히 타고 불길이 1층에서 2층으로 번지고 있었다”며 “곧바로 화재 신고를 했고, 소방관과 영상통화를 하며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집 안에서 미처 나오지 못한 아내를 구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수 차례 들락날락했다. 연기와 불길이 거세지자 차마 들어가지 못하며 ‘어떡하면 좋으냐’며 발만 동동 굴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보다못해 할아버지를 향해 ‘얼른 대피하시라’고 외쳤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손과 몸 곳곳을 덴 상태였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몸을 피했다.

오전 5시20분께 1층에서 어머니와 작은아들이 잠옷 차림으로 대피했다. 어머니는 ‘첫째는 어디냐? 밖으로 대피하지 않았냐’며 다급한 목소리로 연신 큰아들을 찾았다.

A씨는 “옆집에서 난 불이 집 앞 2m 거리까지 번지자 어머니와 동생, 고양이를 데리고 급히 대피했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A씨는 “불이 난 집에 살던 형제는

외출하고 들어오면 항상 2층에 사는 외할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라며 밝게 인사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릴 정도로 밝고 예의가 있었다”고 했다.

근처에 사는 50대 여성 B씨도 절박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했다.

B씨는 ‘불이야’라는 외침과 유리창 파편 뒤는 소리로 바깥을 나가보니 새빨간 불길이 1층부터 2층 옥상에 걸린 천막까지 태우는 모습을 보며 뛰는 가슴을 움켜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수 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불을 꺾지만, 불길은 잠시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거세졌다”고 말했다.

B씨는 “형제간 우애가 좋았다. 이웃과 마주치면 ‘늘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건네던 아이들이었다. 참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불로 일가족 5명 중 정모(14)



군과 정군의 외할머니(72)가 숨졌다. 또 정군의 외할아버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군의 어머니와 동생은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 중이다. 또 주택 1·2층 연면적 96.3㎡가 타

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206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서 불길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생일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

대구행동하는우파시민연합 등이 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아백화점 소풍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기념해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1년째 매출 0원”...전북 여행업계, 생존권 보장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북지역 중소여행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실상 영업 정지 상태로 1년 동안 매출이 0

원”이라며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소연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부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모진 시간을 감내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직원들의 실질 상태를 막아보고자 유·무급 휴직 등 온갖 방법을 강구하며 하루하루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행업 종사자 및 가족의

절규를 담아 호소한다”며 “최소한의 생존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표자 생존비용 지원 ▲여행업 관련 세금·대출 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에 여행종사자 우선순위 배정 ▲관광사업등록증 한시적 이전 범위 완화 등이다.

오유나기자

## “이번주 300명대 유지시 거리두기 완화?”

###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1주 평균, 오늘 300명대로

### “환자 수 가장 중요하지만 집단발생 징후 살펴야”

방역 당국이 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평균 300명대를 유지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여부는 집단감염 발생 징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 “환자 숫자가 제일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지만 어떤 형태로 감염이 일어나, 그리고 더 큰 집단 발생의 징후가 있느냐 모든 것이 감안되어야 할 상황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355명, 1일 305명, 이날 336명으로 최근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추이를 보면 516명→479명→445명→423명→325명→285명→295명 등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1일까지 4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가 이날 395.14명으로 감

소했다.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의 400~500명을 벗어나 2단계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정부는 전국 1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가 400~500명을 넘는 경우 또는 더블링(두배로 급증)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 단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단지 환자 숫자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건 아니다”며 “현재는 대전과 광주에서의 유행 이후 약간의 정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감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배경엔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단발생은 1월4주(1월17일~23일) 21.8%에서 1월5주(1월24일~30일) 32.7%로 늘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지난달 약 3300명 규모로 누적됐다. 특히 집단감염은 IM선교회 소속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육가공업체 등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에서 늘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의 감염자로부터 평균 몇명이 추가 감염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월4주 0.82에서 1월5주 0.95로 증가했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환자 발생이 증가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해 단계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되, 이번주 유행 상황을 보고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 설명회에서 “(진단) 검사량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화요일(2일) 이후 수·금(3~5일)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재논의를 위한)구체적인 일정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